



우리나라 史學界의 거장으로 70여년을 역사학자로 몸바친
 斗溪 李丙燾박사는 5남4녀를 비롯해 3대에 걸친
 직계 가족중 교수·박사만도 30여명에 이른다.
 장남 基寧, 차남 春寧, 3남 泰寧씨는
 선친의 뒤를 이어 서울대 교수로, 4남 東寧씨는 포항공대 교수로,
 5남 本寧씨는 MIT 객원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도 거의가 해외 명문대를 거쳐
 현재 대학교직에 몸담고 있어 斗溪의 후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가족'을 이루고 있다.

史學界의 巨星 故 李丙燾박사와 아들 基寧·春寧·泰寧·東寧·本寧가족

3대에 걸친 직계가족 교수·박사만도 30여명



◀ 3대에 걸친 斗溪의
 직계 가족들만도 교수·박사가
 30명에 이른다.
 사진은 斗溪(왼쪽에서 다섯번째)
 생존시에 가족과 함께 찍은
 것으로 그 당시 4남은 영국에서,
 5남은 미국에서 유학중이었다.

‘명가(名家)란 무엇인가? 명가가 존재하긴 하는가’라는 물음이 있다면 대답은 그렇다. 명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명문(名門)으로 문벌이 좋은 집안이라고 간단히 나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문벌이 좋다고 해서 모두 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사학자 李丙燾의 가계를 말할때 대를 잇는 명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을 아껴라. 복은 너무 탐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눠 주는 것이다”라는 가훈과 “일신우일신하여 학문하기를 게을리 하지말라”는 교훈으로 평생을 학문에 전념한 斗溪 李丙燾의 명가를 소개해 본다.

1919년 일본 와세다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斗溪는 지난 89년 작고할 때까지 70년간을 역사학자로 몸을 바친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거장이다.

진명여고 출신 아내의 내조로

일본사교수인 요시다도고박사가 쓴 「日韓古史斷」이라는 책을 읽고 일본인이 우리 역사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고 우리가 우리 역사를 몰라선 안된다는 사명감으로 역사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斗溪. 그러나 당시 왜정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아래 우리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인가는 그 시대를 걸어온 세대라면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3남인 泰寧박사는 하루도 고등계형사가 집 앞을 떠난 적이 없을 정도로 감시가 심했다고 회고할 정도다.

과거 斗溪의 집안은 조선조말 벼슬을 한 집안이라 10대 중반까지 한문공부에만 전념해 신학문은 배울 기회가 없었으나 다행히 15세때 결혼을 한 배우자인 趙南淑여사는 그 당시 진명여

고를 다녔을 만큼 신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영어에는 능통했고 역시 신학문을 공부한 처남의 영향을 받아 두계도 이때부터 영어와 일어에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두계는 시인인 안서 金億(金素月의 스승)의 요청으로 동인지 ‘폐허’에 참여했을뿐 아니라 역사연구학술단체인 ‘진단학회’를 창설하여 국내 최초로 학술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늘 학문에만 전념하고 청렴하게 생활한 가운데 본인도 수입이 전혀 없었을 때 조남숙여사는 1백석 되는 농사에서 나오는 이윤과 하숙을 쳐서 번 돈으로 3백부 정도 찍어내는 학술지의 전 운영비를 조달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평소 두계가 인자하면서 조용했다면 조남숙여사는 정열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으로 남편을 신학문에 접하도록 확실히 내조를 함은 물론 5남4녀를 모두 훌륭히 키워내 장한 어머니상을 받기도 하였다.

생전에 두계는 광복후 서울대 창설에 참여했으며, 62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서울대 교수로 봉직, 퇴임후 서울대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그외에도 50년부터 54년까지 전사편찬위원장, 55년부터 82년까지 국사편찬위원을 지냈고 60년부터 81년까지 학술원장, 80~88년 국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장남가족 7명이 박사학위

3대에 걸친 두계의 직계 학자들만 봐도 교수, 박사만 30명에 이른다. 큰 아들 基寧씨(이학박사·서울대 명예교수) 집안에는 부인 牟壽美씨(영양학박사)를 비롯, 장남 莢茂(이학박사·미미시건대교수), 莢茂부인 姜日熙(의학·미 캘리포니아의대 외래교수), 차

남 雄茂(의학박사·아주대교수), 딸 寅惠(생물학박사), 사위 池泰和(생물학박사·미 와이오밍대교수) 등 7명이, 2남 春寧씨(이학박사·서울대 명예교수)에게는 장남 長茂(공학박사·서울대교수), 사위 夫南哲(정치학박사) 등 3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그리고 3남 泰寧씨(이학박사, 서울대 명예교수)는 장남 溇茂(의학박사·충북의대 교수), 장녀 美卿(농화학박사), 2녀 宣卿(음악학박사), 3녀 希卿(미술사학박사과정) 등이, 4남 東寧씨(물리학박사, 포항공대 교수)는 장남 明茂(의학박사), 차남 鎭茂(이학·의학박사), 장녀 恩奎(의학박사·로스엔젤리스 데이비스 의대교수), 5남 本寧씨(물리학박사·MIT 객원교수)도 장남 壁茂(경제학박사·미 라이스대교수), 차남 道茂(의학박사) 등이 있다.

3남까지 서울대 명예교수 활약

장남 基寧씨는 56년 프랑스의 소르본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45년부터는 부친 두계와 서울의대 교수로 임명돼 79년 정년퇴임했으며 퇴직후 영남대 생화학교수로 7~8년 교수 생활을 거쳐 81세가 되는 해까지 인제대 의대교수로 활동하는 등 지칠 줄 모르게 왕성한 활동을 했다. 학술원 회원으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을 생화학자로 남았다. 특히 유전공학의 기초가 되는 핵산연구의 선구자로 프랑스국가문화훈장,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생화학을 전공한 농학자인 차남 春寧씨는 농학자이면서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 역사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농업사」라는 우수한 저서를 남긴 장본인이기도 하다.

52년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46년 서울 농대교수로 부임하여 학장을 지냈고 82년 형님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이외에도 학술원회원, 노화학회장, 한국콩연구회장을 역임했고, 학술원저작상, 국민훈장 동백장, 월봉저작상을 받았다. 춘녕씨의 장남 長茂는 서울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공대 정밀공학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63년 서울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관과 동식품 영양연구실장을 지낸 3남 泰寧씨는 산학협동차원에서 국방연구소 시절 대학과 연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생화학을 전공한 둘째형이 이 아이디어를 먼저 실행해 나중에는 서로의 전공범위는 터치하지 말자는 규정까지 만들었다는 추억담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4남 포항공대, 5남 MIT교수

3남 태녕씨까지는 모두 서울대 명예교수로 추대되는 영광을 누렸고 길이 길이 남는 업적을 앞다투어 쌓아 올렸다. 태녕씨는 또한 특이하게도 현재 문화재위원으로 해인사 8만대장경의 보전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4남 東寧씨는 영국 런던대에서 플라즈마물리학을 전공, 이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워싱턴DC의 가톨릭대교수를 거쳐 현재는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래 물리학을 전공한 동녕씨지만 그는 영국 런던 퀸메리대에 유학, 원자력을 전공하기도 했다. 동녕씨가 유학할 당시 런던대에서는 서울대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녕씨의 실

력을 보고 다음 서울대출신 유학생부 터는 학력을 인정,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을 허가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59년 귀국, 서울대에서 잠시 강의를 하다가 64년에는 미국 워싱턴DC의 가톨릭대 교수 생활을 거쳐 70년부터 약 18년간은 미 해군연구소에서 근무했으나 지금은 포항공대에서 포항기속기연구소장까지 맡아 어느 누구 못지않은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5남 本寧씨는 서울의대 2년째 문교부 국비장학생으로 뽑혀 미국 명문대인 다트머스대학을 거쳐 하버드대학원에서 물리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MIT객원교수, 대학때 교양과 전공과목 모두에서 우등상장을 받아 한국두뇌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혁혁한 공을 세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의 아들 벽무 또한 MIT를 졸업하고 라이스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차남 도무는 하버드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다시 MIT로 전학, 지금은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원으로 있다. 5남 본녕의 집안은 그야말로 해외에서 한국 두뇌의 우수성을 마음껏 펼치며 국위를 선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딸 4명도 과학가족 이뤘

장녀 舜卿(경기여고)씨는 남편 張旭鎭씨(화가겸 조각가)와의 사이에 1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正淳씨 또한 서울대 동물학과와 일본 소화대 의학박사를 거쳐 현 인하대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차녀인 雲卿(서울여의전, 한국병원부원장)씨는 70~79년 박정희대통령 주

치의였던 閔獻基씨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3녀 承姬씨(한성대)와 4녀 季姬씨(서울대)가 있다. 평소 책을 사랑했던 두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늘 새로운 책과 교서를 보면 흥분했고 그것을 살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빌려서라도 봐야 직성이 풀렸기에 그의 집안에는 전국에서 날아온 책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런데 그때만해도 우리나라는 보잘 것 없이 못살던 시절이어서 교서를 빌릴 때면 온갖 빈대나 곰팡이도 같이 붙어와서 온 식구가 알리지를 앓을 정도였다고 한다. 두계를 비롯하여 5남 4녀중 누구 하나 통통한 이가 없는데 이것은 체질도 체질이려니와 그때 걸린 알리지로 인해 이렇게 마르지 않았나 하는 태녕씨의 얘기를 듣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또한 모든 자녀들이 어린 시절, 장남인 기녕씨와 둘째인 춘녕씨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들은 일가 친척들이 이들을 본받으라고 자식을 하나, 둘씩 보내 급기야 조남숙여사는 직접 하숙을 칠정도였다고 과연 당대의 대가요, 과학의 명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늘 청렴하며 학문만을 사랑했던 두계의 일가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듬뿍 받아서인지 그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술적 유전과 환경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더욱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한결같이 믿고 있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